

또래관계의 질 평가를 위한 RCP (Revised Class Play)의 타당화 연구

Validation of the Revised Class Play Scale
for the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

천 회 영 *
Chun, Hui Young

ABSTRACT

The Revised Classroom Play(RCP) scale was validated for Korean 4th grade students. 104 boys and 80 girls took the translated RCP. Test-retest reliability was established with 41 children after 2 months, and test of criterion-related validation was established by the Social Behavior Scale administered to 71 children. All raw scores were standardized by classroom and sex to adjust for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nominators and nominees. The structure of the RCP resulted in 3 factors, 'sociability-disruptive' and 'shy-isolated', with 28 items similar to the original RCP 3 factors. For criterion-related validity,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3 factors of the RCP and the 3 factors of the Social Behavior Scale were positive. For internal consistencies, Cronbach's α of the RCP factors ranged from .77 to .94. Test-retest reliability coefficients ranged from .33 to .51. Analyses of variance revealed good item discrepancies for all 28 items. These results confirm the RCP as a valid and reliable measure of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

I. 서론

또래와의 어울림은 서로에 대한 도식(shemata)이나 기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평가와 사회적 관계망을 설정하도록 한다(Hartup, 1992). 특히 현대사회에서 아동은 일찍이 탁아시설 등에서부터 또래 관계를 경험하기 시작하여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또래

와 보내게 된다. 이에 과거 20년간 아동기의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목되어 왔다(Younger, Gentile, Burgess, 1993).

또래관계의 발달적 중요성은 아동기의 사회적 부적응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의 적용문제 및

* 고신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정리병리와 연관된다고 많은 관련 연구들에 의해 보고되어 왔다(Younger et al., 1993). 물론 이러한 위기 가설에 따른 예언은 여러 문제점들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Hartup, 1992). 그러나 Rubin과 Rose-Krasnor(1992)의 정의에 따라 또래관계에서의 사회적 능력을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또래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반영하는 강력한 목록인 또래수용과 또래평판(Masten, Morison, Pellegrini, 1985)은 사회적 성격, 정서 및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송명자, 1995).

또래관계에의 적응 또는 성공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우정관계를 발달 유지시키는 능력, 그리고 또래집단에서의 수용 등에 반영되어 나타나며, 이러한 행동의 평가는 또래, 교사 또는 외부관찰자를 통한 관찰방법에 의해 주로 이루어 졌다(Rubin, Bukowski, & Parker, 1998). 또래의 사회적 기능 평가자로서 아동은 성인에 비해 인지적·언어적 능력이 부족하고 관계를 맺는 대상에 제한이 있으며, 빈번하지는 않으나 현저한 사건에 크게 영향받아 평가할 수 있다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래 지위에 관한 안면 타당한 정보를 제공한다(Hymel, Woody, & Bowker, 1993; 임연진, 1998). 또래는 집단 내부인(insiders)으로서, 집단 내 사회적 지위나 통합성을 결정하는 전망과 관련된 아동의 특성과 관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판단은 다양하고도 확대된 경험에 근거하며, 마치 많은 관찰자들이 목표아동과 다양한 사적관계를 통해 갖게 되는 전망들을 제공하기도 한다(Hymel & Rubin, 1985, 재인용).

아동을 평가자로 하는 또래 평가방법 중 또래 관계에서의 사회적 능력을 반영하는 또래수용과

또래평판의 측정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Masten et al., 1985; Younger et al., 1993).

첫째는 Moreno(1934)에 의한 사회측정법(sociometric method)으로 아동이 놀이나 과제를 수행할 때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또래를 지명 또는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Moreno는 친화(attention)와 거부(repulsion)의 개인경험 차원을 고려하여 대인관계와 경험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에 단순히 “가장 좋아하는” 또는 “가장 덜 좋아하는” 또래를 지명함으로써 인기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 측정치들이 또래수용이나 거부와 같은 사회측정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회측정법은 1940-1950년대 또래집단에서의 지위목록 개발, Peery(1979)와 Coie 등(1982)에 의한 아동의 집단화, Asher와 Dodge(1986) 등에 의한 평정척도 측정법 도입 등으로 방법론적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Rubin et al., 1998).

그러나 사회측정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는다고 지적된다. 극단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기준점수(cutoff score)를 사용하는 것은 심리적 의미보다는 통계적 의미를 갖도록 고안되었다는 점, 분류의 필요에 의해 사회측정적 분류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영향과 선호 차원과 같은 연속변인을 분류 변인화하는 것은 연속 측정치로서의 민감성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사회측정적 집단은 여러 차원의 특성조합에 따른 것이므로 분류 집단간 경험의 결과 차이가 어느 차원의 특성에 의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사회측정의 과정에서 아동에게 부정적인 지명을 요구하는데 따른 심리적 불편함은 반응 아동에게 잠재적 위협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아울러 사회측정법은 또래집단에서 한 아동이 받는 전반적인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판을 측정하지만 왜 그러한 평판을 얻게 되는지를 거의 보여주지 못하는 미분화된 평가방법으로 지적된 바 있다(Asher & Hymel, 1981, 재인용; Rubin et

al, 1998).

두 번째 측정방법으로는 기술적 짝짓기 방법(descriptive matching methods)을 들 수 있다. 이는 사회측정법에 의한 미분화된 평가와는 달리 행동의 특수한 패턴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에 다양한 사회적 행동의 목록을 제시하고 각 행동에 의해 가장 잘 기술되는 또래를 지명하도록 요구한다. “다른 아이들을 항상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검사로는 ‘Guess Who’(예를 들면, Tuddenham, 1952), ‘Class Play’(CP; Bower, 1969; Lambert & Bower, 1961), ‘Pupil Evaluation Inventory’(PEI; Pekarik, Prinz, Liebert, Weintraub, & Neale, 1976), ‘Peer Nomination Inventory’(PNI; Perry, Kusel, & Perry, 1988) 등이 있다 (Masten et al., 1985 ; Rubin et al., 1998 ; Younger et al., 1993).

CP에서 아동은 가상의 연극 연출자가 되어 같은 반의 아동들을 여러 가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역할에 맞게 배역을 정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리고 각 유형에의 지명도를 통해 또래 평판의 전반적인 목록을 얻게 된다. CP 점수의 단기 안정성, CP 점수가 정서적 부적응 및 부적응적인 행동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타당성이 검증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실제적 장점으로는 가상의 역할에 또래를 배정하는 평가방법이 초등학교의 거부감을 덜 일으키며, 다양한 역할이 제시됨으로써 또래에 의해 부정적으로 지명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CP의 심리측정적·실제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CP는 PEI와 마찬가지로 부적응의 조기발견을 위해 개발된 것이므로 부정적 행동의 문항이 우세하게 많으며 능력있는 행동을 반영하는 문항들을 불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Masten et al., 1985). Hartup(1983)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또래

수용은 거부의 부재나 부정적 평판만으로는 추론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Masten과 그의 동료들(1985)은 CP에 또래평판의 긍정적 측면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문항들을 확대 포함하고 또한 방법론적으로 수정한 RCP(Revised Class Play)를 개발하였다. CP와 RCP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항 내용의 수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능력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문항 즉 긍정적인 역할에 관한 문항들, 기존의 역할에 의해 이미 목록화되어 있는 사회적 속성들의 반대 속성을 나타내는 문항을 새로 추가하였다. 사회적 능력보다는 학업 그리고/혹은 지적능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항들(예를 들면, “머리가 좋고 해답을 잘 아는 사람”)은 후광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외되었다. 상이한 중다행동들을 기술한 문항의 내용은 역할을 단순화하였다.

검사의 실시와 형식에 관련하여서는, CP의 배역 결정에 성 차이가 있음이 보고(예를 들면, Rolf, 1976)된 데 근거하여 각 교실에서 성별로 배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나머지 성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연극을 위한 배역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또한 CP에서는 생각나는 아동의 이름을 빈칸에 써넣도록 했는데 비해, 2회의 실시 시기별로 지명될 수 있는 모든 아동들의 이름을 알파벳 순서로 제시한 응답지를 사용토록 하였다.

그들은 2개 초등학교의 3학년~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RCP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평가 결과, 긍정적 행동의 문항들은 ‘사교적-리더십(sociability-leadership)’ 요인으로, 부정적 행동의 문항들은 ‘공격-분열성(aggressive-disruptive)’과 ‘민감-고립성(sensitive-isolated)’의 요인으로 묶이며, 이 세 요인에 의한 총 설명변량은 64%임을 알 수 있었다. 2개 학교 별로 내적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긍정적 차원에서는 평균 .94, 분열성은 평균 .83으로 나타났다. 6개월 뒤 재검사를 실시한 바 세

요인 모두의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17개월 뒤에는 학년과 반이 바뀔 때 따라 여아의 긍정적인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지지만 여전히 점수간 유의한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세 요인의 총점간의 상호상관은 모두 낮거나 중간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사교성과 독립성 요인이 가장 밀접히 연관됨($r=-.38$)을 알 수 있었다. RCP 점수와 교사에 의한 교실 행동 평정, 학업성취, IQ와의 관계를 보면, 긍정적 요인은 세 가지 능력지수들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독립성 점수는 모두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열성 점수는 교사에 의한 '분열적-적대적' 행동의 평정과는 정적 상관이 있으나 흥미롭게도 지능이나 성취도 검사점수와는 관련이 없었다.

RCP의 예언타당도는 Morison과 Masten(1991)에 의해 보고되었다. 3학년~6학년의 정상아동 207명을 대상으로 RCP를 실시하고 7년 후 그 88%의 아동을 대상으로 RCP를 재실시한 결과, RCP의 세 차원 점수 모두가 청소년기의 능력과 정신병리에 유의하게 상관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긍정적인 동료평판은 나중의 적응을 예언하는 중요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민감-고립적인 사회 행동은 성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나, '민감-고립성' 점수가 높은 남아는 여아에 비해 자존감이 더 낮고, 스포츠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의 개입도와 필요한 능력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회적 평판과 또래 관계를 비교문화적으로 연구한 Chen, Rubin 그리고 Sun(1992)은 중국과 캐나다의 2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RCP를 실시하고 각 나라 아동에서의 RCP의 구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캐나다의 표집을 통해서 Masten과 그의 동료들(1985)의 연구에서 보고된 요인구조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중국 표집의 경우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원래의 RCP에서 '사교적-리더십'에 속한 문

항들은 모두 같은 '사교적-리더십' 요인으로 묶이지만 예외적으로 한 문항("친구들을 잘 웃기는 사람")은 제 II요인에 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의 '공격적-분열성'에 속한 문항들은 제 II요인으로 부하되었으나 독립성 관련 세 문항("자주 혼자 남게 되는 사람", "애기할 때 모든 사람이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사람",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사람")은 제 II의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이에 제 II요인은 '공격-고립성'으로 명명되었다. 제 III의 요인은 원래의 '민감성' 관련 문항들로서 구성되었으며 '수줍음-민감성'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이상과 같은 RCP의 평가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RCP는 타당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양호한 검사도구라 하겠다. 특히 중국과 같은 동양문화에서의 RCP 요인구조는 서양문화에서의 그것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원래의 요인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RCP의 요인 탐색 결과도 RCP의 원래 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아동의 사회적 발달 연구에서 RCP는 아동의 공격적 행동과 사회철회적 행동의 측정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Hymel, Rubin, Rowden 그리고 LeMare(1990)는 아동 중기에서 후기까지 또래관계를 종단적으로 연구하면서 RCP의 '공격-분열성' 차원과 '민감-고립성' 차원의 점수를 사회적 행동의 점수로 이용하였다. 2학년 때 아동의 또래거부(비인기성)와 공격성은 5학년 때의 외재화 문제(externalizing difficulties)를 예언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철회적 행동은 2학년과 5학년 때 모두 또래수용, 자아지각에 부적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남으로써 사회적 고립이 아동기 발달에서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Boivin과 Hymel(1997)은 RCP에 의한 공격성과 철회성이 어떻게 부정적인 사회적 자아지각

으로 발달되는지를 연속모델에 의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철회적 행동이 유일하게 사회적 자아지각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hen과 그의 동료들은 RCP를 사용하여 수행한 상하이 종단연구(Shanghai Longitudinal Project) 관련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보고한 바 있다. 먼저 Chen과 그의 동료들(1992)은 2학년과 4학년인 캐나다와 중국 아동 모두에게서 RCP에 의한 '사교적-리더십'은 긍정적인 놀이친구 지명도와, '공격-분열성'은 부정적인 놀이친구 지명도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 '수줍음-민감성'은 캐나다 아동에서는 긍정적인 놀이친구 지명도와 부적으로 연관되지만 중국 아동에서는 정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고하였다. 중국 아동만을 대상으로 2년 후 사회적 적응과 기능을 조사한 결과, 서구의 연구결과와 일관되게 '사교적-리더십'은 적응 목록들과, 공격성은 부적응의 목록들과 연관되며 예언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세와 10세 아동의 경우 '수줍음-민감성'은 적응 목록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임으로써 서구의 연구결과와는 비일관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Chen, Rubin, & Li, 1995). 다시 2년 후 어머니의 수용성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조사 보고한 Chen, Rubin, & Li(1997)는 어머니의 수용-거부와 아동의 수행간의 관계는 사회적 영역 또는 학교기능 영역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었다. 예로서, 어머니의 수용은 공격성과 또래거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만 '수줍음-민감성', 학업수행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표집의 2학년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hen, Dong 그리고 Zhou(1997)는 RCP에 의한 공격성은 권위주의자적 부모역할 수행과 정적으로, 수줍음-사회적 철회는 유의하게 부적으로 관계됨을 보여주었다.

RCP는 PEI와 함께 민감한, 고립된, 그리고/또는 철회적인 사회행동을 평가하는 하위척도 혹은

요인을 포함하는 또래평가 도구로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도구이다(Hymel et al., 1993). 이에 RCP의 철회성 문항만을 이용한 Younger와 Daniels(1992)의 연구와 Hymel과 그의 동료들(1993)의 연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Younger와 Daniels(1992)는 초등학교 1, 3, 5학년 학생이 또래를 철회적인 아동으로 지명하는 이유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RCP의 7개 철회성 문항 반응에의 이유를 질문하였다. 철회성 지명의 이유를 '수동적 철회'와 '적극적 고립'의 두 범주로 나누었을 때 3개 문항은 전자에, 3개 문항은 후자에 근거하여 반응되며 나머지 한 문항은 양 범주에 똑같이 근거하여 반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Hymel과 그의 동료들(1993)은 4학년~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지각과 사회적 철회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동성의 학급또래 모두를 RCP의 수동적 철회성을 평가하는 2개 문항 각각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아동에게 요구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한 각 아동의 집단적 평가가 가능토록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철회성은 긍정적 자아개념과는 부적상관을, 부정적인 사회적 자아지각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ubin, Hymel 그리고 Mills(1989)는 워터루 종단 연구(Waterloo Longitudinal Project)에서 RCP의 철회성 차원 뿐 아니라 사회성 차원에도 관심을 가졌다. 캐나다의 2학년 아동이 5학년이 될 때까지 매년 RCP를 실시하고 이 두 차원의 점수가 3년간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행해진 또래관계의 질 평가 연구들은 대부분 또래지위 측정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또래지위와 사회적 행동간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행동 및 사회적 발달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져 왔다. 따라서 또래지위를 측정하는 사회측정법이 널리 사용되었다. 예로서, 임연진(1998)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도현심과 최미경(1998)은 또래지위보다 폭넓은 또래경험을 측정할 목적으로 Perry, Kusel, 그리고 Perry(1988)에 의한 'Items on the Modified Peer Nomination Inventory'를 번역하여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또래 공격성'이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특성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인 사회적 특성관련 문항들은 단지 여백을 채우는 문항(filler items)의 역할만 하는 자기평정식 도구였다. 마찬가지로 교사평정에 의한 아동의 사회적 행동 측정을 목적으로 한 대표적 도구인 PBQ(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 Behar & Stringfield, 1974)나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Edelbrock & Achenbach,

1984)도 부적응 문제행동의 측정에만 초점을 두었으므로 RCP와 같이 긍정적·부정적 행동특성을 모두 측정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었다(예를 들면, 이선경과 이재연, 1998; 임연진, 1998).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긍정적 및 부정적인 또래관계의 질을 측정하며, 심리측정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된 RCP가 우리 나라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연구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RCP의 타당도와 신뢰도, 그리고 문항양호도를 각각 평가함으로써 우리 나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연구 특히 또래관계 맥락에서의 행동연구를 위한 또래 평가방법에 새로운 목록을 추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은 부산시내 초등학교의 4학년 4개 학급의 남아 104명, 여아 80명으로 총 184명이었다. 대상 아동의 학년 결정은 Maste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5)에서 연구대상이 3학년~6학년 아동들이었다는 점을 참고하였다. 또, 어린 아동은 지각특성상 사회적 철회를 신뢰롭게 측정할 수 없으며 적어도 4학년이 되면 철회성의 개념이 발달되어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Hymel과 그의 동료들(1993)의 입장, Younger 등(1993)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대상 아동들의 부모 직업 분포를 보면, 아버지의 직업은 행정, 사무관리직이 65.2%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기술직, 판매서비스직, 생산-비숙련-단순 근무직이 2.7%로 각각 구성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대다수(65.2%)는 주부였으며 전문-기술직과 판매서비스직에 각각 9.8%, 9.2%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54.8%, 고졸이 16.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어머니의 학력 역시 대졸이 43.5%, 고졸이 28.8%로 나타났다.¹⁾

2. 연구도구

1) Revised Class Play

RCP는 30개의 역할들(긍정적 역할 15, 부정적 역할 15)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사교적-리더십' 관련 역할이 15개, '공격-분열성' 관련 역할이 8개, '민감-고립성' 관련 역할이 7개이다.

RCP는 학급당 2회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학급 전체의 아동이 30개 역할문항에 대해 한 성(sex)

1) 직업과 학력의 비율(%)은 무응답을 포함한 비율임.

의 아동들을 역할 배정하도록 했으며, 두 번째는 다른 성의 아동들을 역할 배정토록 요구했다. 일반적인 실시절차를 보면, 아동의 성별 이름 목록을 포함하는 2개의 응답지를 준비하여 배부한 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는 학급의 아이들이 출현하는 연극의 연출자입니다. 연극의 연출자는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연극에 출현할 사람을 잘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각 역할에 가장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학급생활을 생각해 보고 각 역할에 맞는 사람을 뽑도록 하세요.

아동들은 역할 당 한 사람만을 선택하도록 하되, 같은 아동이 하나 이상의 역할을 맡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시 받았다. 그러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각 역할을 두 번 크게 읽어 준 다음 이름목록을 보고 지명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었다.

2) 사회적 행동 척도

준거관련 타당도의 검토를 위한 학급에서의 사회적 행동 측정을 위해 임연진(1998)이 사용한 사회적 행동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임연진(1998)이 사용한 사회적 행동 평정척도는 Behar과 Stringfield(1974)의 PBQ를 기초로 교사가 초등학생을 평정하도록 되어있었다. 이 도구는 적대적-공격성, 불안-위축, 과활동성-주의산만 등의 기존 3개 하위영역에 사교적-친사회성 영역이 첨가되어 모두 4개 영역으로 내용 구성되었으며, 3차에 걸친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토대로 개발된 것이었다. 4개 영역에 의한 총 설명변량은 54%였으며 영역별 신뢰도는 .80 ~ .84로 보고된 바 있다(임연진, 199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과활동성-주의산만 영역을 제외한 세 영역의 2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실시하였다.

준거관련 타당도의 검토를 위해 사회적 행동 척도 및 그 하위 세 영역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준거관련 타당도의 검토 목적은 공인타당도 차원에서, RCP 점수와 이 점수를 비추어보고자 하는 어떤 준거와의 상관을 확인함으로써 RCP의 현재 지위(status) 즉 또래관계의 질 진단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비교의 준거로서 사회적 행동을 선정한 것은 또래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또래지위가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과 매우 밀접히 연관된다는 많은 보고들(예를 들면, Coie, Dodge, Coppetti, 1982)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행동특성 중 RCP의 요인 특성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하위영역들을 사회적 행동 척도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행동 척도에서의 구체적인 반응양식을 보면, 각 문항에 기술된 사회적 행동이 해당 아동에게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 2점, 어느 정도 관찰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1점, 전혀 관찰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하위영역별 사회적 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거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였다.

3. 연구절차

먼저 Masten과 그의 동료들(1985)의 연구에 기초하여 RCP의 문항들을 번역하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번역된 문항의 이해에 어려움은 없는지와 실제에 따른 문제를 사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문항 이해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2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수 문항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1차 본조사는 1998년 12월 초 실시되었다. 같

은 학급의 아동으로서 거의 2개 학기를 함께 보낸 시기에 또래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검사는 RCP의 실시를 위한 사전 훈련을 받은 아동학을 전공하는 학부학생 4인에 의해 각 학급에서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2개 반은 남아에 대한 지명을 먼저, 2개 반은 여아에 대한 지명을 먼저 하도록 하였다.

2차 본조사는 RCP의 재검사 신뢰도 산출과 준거관련 타당도 검토를 위한 사회적 행동의 측정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중순 실시되었다. RCP의 재검사는 2개 학급의 아동 71명(남아 39명, 여아 32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4개 학급으로부터 무선적으로 선정된 41명의 아동에 대해 4명의 담임교사가 사회적 행동척도 평정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RCP의 결과 처리를 위해 먼저 각 아동이 RCP의 30개 문항(역할)별로 지명된 빈도를 구하여 이를 원점수로 하였다. 그리고 학급의 크기 및 남 여 학생의 수에 따라 지명자의 수와 피지명자의 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RCP의 문항별 원점수를 학급과 성 범위 내에서 표준점

수로 환산하였다.

사회적 행동 척도의 3개 하위영역별로 해당 문항들의 점수 합을 구하였다.

RCP의 타당도 검토를 위해서는 전체 30개 문항을 변인으로 요인분석 하였다. 요인분석의 모델은 주성분 분석모델을, 추출 요인의 수는 Scree 도표와 요인분석의 설명변량을 참고하여 결정되었다. 요인분석의 기본가정과 관련하여, 표본의 적절성(sampling adequacy) 즉 표본의 상관행렬이 적당한 크기를 갖는지를 알기 위해 Kaiser-Meyer-Olkin(KMO)값을 구하여 참고하였다. 또한 준거관련타당도 검증을 위해 RCP 3개 요인의 총점과 사회적 행동 척도의 3개 요인 총점간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신뢰도의 검증을 위해서는 구성요인별 요인의 총점과 그 하위문항과의 상관계수, 내적합치도를 반영하는 요인별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1차와 2차 조사에 따른 RCP 요인별 총점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재검사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문항양호도 측면에서는 변별도를 알기 위해 요인별 총점의 분포를 기초로 상 27% 집단과 하 27% 집단을 선정 한 후 그 요인에 속하는 문항별 점수가 상·하 두 집단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일원변량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타당도

RCP의 구성요인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1차 요인분석한 결과 30개 문항 중 공유치가 .20 이하 이며 (또는) 두 요인 이상에 공통으로 .35 이

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인 두 문항(원래 RCP의 I 요인 해당 1개 문항과 II요인 해당 1개 문항)을 제외하였다.²⁾ 28개 문항으로 2차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³⁾ <표 1>에서 보듯이

2) 이 후 분석에서는 이 두 문항은 제외되었다.

3)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문항의 번호는 원래 RCP의 문항번호와 동일함.

<표 1> RCP 문항의 회전 후 요인행렬표 *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사교적 -리더십	공격 -분열성	수줍음 -고립성	h^2
12.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	.84			.70
23.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83			.70
20.	새 친구를 쉽게 사귀는 사람	.81			.73
13.	놀이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	.80			.65
26.	어떤 일을 제대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	.80			.66
7.	내가 믿을만한 사람	.79			.67
4.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의견을 말하는 사람	.77			.69
28.	평소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	.76			.59
9.	친구가 많은 사람	.74			.63
30.	혼자 놀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노는 사람	.73			.66
1.	학급을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	.72			.56
19.	예의바른 사람	.66			.58
25.	누구든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	.62			.53
10.	자신의 차례를 기꺼이 기다리는 사람	.61			.43
8.	다른 아이들이 얘기할 때 끼어 드는 사람		.87		.76
6.	지나치게 나서는 사람		.81		.72
27.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사람		.80		.64
29.	성가시게 구는 사람		.77		.65
2.	많이 싸우는 사람		.74		.55
5.	쉽게 흥분하는 사람		.73		.56
17.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사람		.66		.62
21.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61		.42
11.	보통 쉽게 마음이 상하는 사람		.42		.25
24.	평소에 슬퍼 보이는 사람			.81	.67
3.	여럿이 놀기보다는 혼자 노는 사람			.80	.66
14.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사람			.77	.66
22.	자주 혼자 남게 되는 사람			.71	.56
18.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			.45	.26
고유치		8.14	5.50	3.10	
설명변량(%)		29.09	19.63	11.07	
총 설명변량(%)			59.79		

*제외된 문항: 15.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 사람, 16. 친구들을 잘 웃기는 사람

RCP는 3개 요인에 의해 전체 설명변량의 59.79%가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첫번째 요인은 전체 설명변량의 29.09%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14개 구성 문항 모두가 RCP의 제 I요인에 속했던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I은 원래 RCP의 제 I요인과 같이

‘사교적-리더십’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전체 설명 변량의 19.63%를 차지하는 요인 II에 주요 부하량을 보인 문항들은 9개였다. 그 중 7개는 원래 RCP의 제 II요인인 ‘공격-분열성’ 요인에 속했던 문항들이었던 반면 문항 17번과 11번은 제 III요인 즉 ‘민감-고립성’ 요인에 속한 문

항들이었다. 17번 문항의 내용은 “애기할 때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사람”으로 8번 문항과 함께 대화의 공격-분열적인 태도에 관련된 문항으로 볼 수 있었다. 또 11번 문항(“쉽게 마음이 상하는 사람”)은 5번 문항(“쉽게 흥분하는 사람”)과 함께 문항의 내용이 분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요인 II는 원래 RCP의 제 II요인과 같은 성격을 띤 요인으로서 ‘공격-분열성’이라고 명명되었다.

요인 III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래 이 요인에 속했던 문항 중 2개 문항이 제 II요인으로 이동함으로써 해당 문항의 수가 5개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은 문항들의 의미를 해석해 볼 때, 특히 원래 RCP의 제 III요인에 속했던 민감성 관련 문항(11번 문항)이 요인 이동함에 따라 ‘민감-고립성’보다는 ‘수줍음-고립성’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요인에 의한 설명 변량은 11.07%였다.

한편 준거관련 타당도의 검토를 위해 RCP의 3개 요인 총점과 사회적 행동척도의 3개 요인 총점간의 상관계수를 각각 산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검사의 관련 요인간의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사

교적-리더십’, ‘공격-분열성’, ‘수줍음-고립성’이 높을수록 ‘사교적-친사회성’, ‘적대적-공격성’, ‘불안-위축’의 정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CP는 외적 기준 관련 변수인 사회적 행동 척도의 요인 변수와 관련해 볼 때 공인타당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2. 신뢰도

신뢰도 검증을 위해 먼저 3개 구성요인별 요인의 총점과 그 하위문항과의 상관, 각 문항 제외시의 문항별 내적합치도, 요인별 내적합치도 및 재검사 신뢰도를 구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3개 구성요인별 요인의 총점과 그 하위문항간의 산출된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각 구성요인과 하위문항간의 합치도는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내적합치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Cronbach의 α 값을 요인별로 산출한 결과, <표 3>과 같이 α 값은 .77 ~ .94의 범위로 나타났다. 아울러 각 문항을 제외했을 때의 α 값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요인별 α 값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성요인별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만족한 수준으로 볼 수 있었다.

재검사 신뢰도 검토를 위해 구성요인별로 1

<표 2> RCP의 요인별 총점과 사회적 행동척도의 요인별 총점간의 상관관계

RCP의 요인	사회적 행동척도의 요인		
	사교적-친사회성	적대적-공격성	불안-위축
사교적-리더십	.53 ***	-.34 *	-.37 **
공격-분열성	-.20	.65 ***	-.33 *
수줍음-고립성			.55 ***

* p<.05, **p<.01, ***p<.001

<표 3> 신뢰도 관련 통계치

요인	문항번호	요인총점과의 상관계수 a	문항제외시 Cronbach's α	요인의 Cronbach's α	재검사 신뢰도
사교적 -리더십	12	.83	.93	.94	.51 ***
	23	.82	.93		
	20	.84	.93		
	13	.78	.94		
	26	.81	.93		
	7	.77	.94		
	4	.80	.94		
	28	.76	.94		
	9	.77	.94		
	30	.77	.94		
	1	.74	.94		
	19	.62	.94		
	25	.64	.94		
	10	.58	.94		
공격 -분열성	8	.88	.86	.89	.41 ***
	6	.82	.87		
	27	.79	.87		
	29	.75	.88		
	2	.74	.88		
	5	.76	.87		
	17	.67	.88		
	21	.65	.89		
	11	.53	.90		
수줍음 -고립성	24	.81	.69	.77	.33 **
	3	.81	.69		
	14	.78	.70		
	22	.72	.82		
	18	.50	.74		

a 모든 $p < .001$, *** $p < .001$, ** $p < .01$

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의 해당 문항점수들의 합간에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사교적-리더십' 요인은 .51, '공격-분열성' 요인은 .45, '수줍음-고립성' 요인은 .33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2개월 간격으로 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신뢰도 수준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었다.

3. 문항양호도

RCP 구성 28개 문항의 변별도를 알기 위한 문항별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문항의 F값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각 문항에 의해 소속 요인의 총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유의하게 변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

<표 4> 문항별 변별도의 일원변량분석 결과^a

구성요인	문항 번호	변량원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b	구성요인	문항 번호	변량원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b
사교적 - 리더십	12	집단간	51.11	51.11	65.89	공격 - 분열성	8	집단간	50.58	50.58	57.10
		집단내	89.20	.78				집단내	101.88	.89	
		전 체	140.31					전 체	152.46		
	23	집단간	46.84	46.84	50.96		6	집단간	32.70	32.70	29.56
		집단내	105.68	.92				집단내	127.19	1.11	
		전 체	152.53					전 체	158.88		
	20	집단간	37.63	37.63	37.12		27	집단간	28.96	28.96	25.64
		집단내	116.58	1.01				집단내	129.91	1.13	
		전 체	154.21					전 체	158.87		
	13	집단간	49.98	49.98	60.61		29	집단간	46.05	46.05	49.97
		집단내	94.83	.83				집단내	105.99	.92	
		전 체	144.81					전 체	152.03		
	26	집단간	27.08	27.08	23.75		2	집단간	29.13	29.13	25.44
		집단내	131.16	1.14				집단내	131.70	1.15	
		전 체	158.25					전 체	160.84		
	7	집단간	47.14	47.14	51.11		5	집단간	55.94	55.94	67.70
		집단내	106.06	.92				집단내	95.04	.83	
		전 체	153.19					전 체	150.98		
	4	집단간	35.93	35.93	35.12		17	집단간	46.63	46.63	51.86
		집단내	117.64	.92				집단내	103.40	.90	
		전 체	153.56					전 체	150.03		
	28	집단간	44.15	44.15	48.74		21	집단간	30.95	30.95	27.26
		집단내	104.18	.91				집단내	130.58	1.14	
		전 체	148.33					전 체	161.53		
9	집단간	34.10	34.10	32.42	11	집단간	46.47	46.47	59.36		
	집단내	120.98	1.05			집단내	90.03	.78			
	전 체	155.08				전 체	136.50				
30	집단간	31.01	31.01	28.36	수줍음 - 고립성	24	집단간	43.73	43.73	46.63	
	집단내	125.74	1.09				집단내	107.84	.94		
	전 체	156.76					전 체	151.57			
1	집단간	22.56	22.56	18.61		3	집단간	40.87	40.87	40.71	
	집단내	139.44	1.21				집단내	155.44	1.00		
	전 체	162.00					전 체	156.31	14		
19	집단간	49.85	49.85	56.87		14	집단간	31.87	31.87	28.85	
	집단내	100.88	.88				집단내	127.06	1.11		
	전 체	150.76					전 체	158.93			
25	집단간	24.49	24.49	25.74		22	집단간	33.08	33.08	30.16	
	집단내	109.41	.95				집단내	126.15	1.10		
	전 체	133.90					전 체	159.24			
10	집단간	53.41	53.41	72.33		18	집단간	49.83	49.83	58.97	
	집단내	84.92	.74				집단내	97.16	.85		
	전 체	138.33					전 체	146.99			

a 요인별로 총점의 상하 각 27%에 해당하는 집단의 아동 1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집단간 df=1, 집단내 df=115임

b 모든 유의도 p<.001

서 RCP의 문항들은 변별도 측면에서 양호한 문항들로 간주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또래관계의 질을 또래평가에 의해 측정하는 RCP를 우리 나라 아동에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하여졌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RCP의 구인타당도 검토 결과, 우리 나라 아동들에서도 Masten과 그의 동료들(1985)이 RCP를 개발할 때 보고한 요인구조와 거의 동일한 요인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2개의 문항이 제외되었으며, 제 III요인의 2개 문항이 제 II요인으로 이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래 RCP의 '사교적-리더십', '공격-분열성', '민감-고립성' 요인별 문항의 구성과 동일한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세 요인에 의한 총설명변량이 약 60%로 나타난 것 역시 Masten 등(1985)의 연구에서 64%, 중국과 캐나다 아동 표집에서 각각 60%와 63%로 나타난 것(Chen et al., 1992)과 유사한 결과로 생각되었다.

소속요인이 변동된 문항 17의 경우는 문항 내용이 '공격-분열성'과도 연관되며, 중국과 캐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 결과(Chen et al., 1992)에서도 똑같은 소속요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오히려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11번 문항은 중국과 캐나다 표집에서도 민감성 요인으로 제 III요인의 한 속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요인행렬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문항11의 요인공유치(h^2)는 .25로 낮고 요인부하량은 요인 II에 .42, 요인 III에 .24로 나타나 분석대상 28개 문항 중 통계적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으로 평가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항 11을 추가로 제외하지 않는 한, 제 II요인은 분열성과 관련된 민감성을 일부 특성으로 포함하는 '공격-분열성'으로 해석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처럼 '민감성'에 해당되는 문항(11번 문항)이 요인 II로 이동함에 따라 제 III요인은 수줍음과 고립성에 관련되는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원래 RCP의 제 III요인 즉 '민감-고립성'과는 달리 '수줍음-고립성'으로 명명되었다. 제 III요인의 성격 변화는 Chen 등(1992)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었다. 중국 아동들은 '수줍음-민감성'에 가치를 부여하므로 고립/거부와는 구별하며 이에 따라 또래에 의해 고립되는 것과 관련된 문항은 '공격-분열성' 요인에 소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예를 들면, 22번, 14번 문항). 그 결과 제 III의 요인은 '수줍음-민감성' 요인으로 원래의 제 III의 요인과는 달리 명명되었다. 또 캐나다 아동의 경우는 11번 문항이 그대로 제 III요인에 소속되었지만 고립감 관련 두 개 문항이 제외되면서 '수줍음-민감-고립성'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제외된 2개 문항(문항 15와 문항 16)은 흥미롭게도 Masten과 그의 동료들(1985)의 연구와 Chen과 그의 동료들(1992)의 연구에서도 제외된 문항들이었다. Masten과 그의 동료들(1985)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문항 15의 제외는 어느 한 요인에도 명확히 요인부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명될 수 있었다. 문항 16("친구들을 잘 웃기는 사람")의 경우는 Chen과 그의 동료들(1992)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치, 요인부하량과 관련된 통계적 부적절성으로 제외되었으나 Chen 등(1992)의 연구에서는 특히 중국 표집의 경우에 '공격-분열성'요인에 부하되면서 캐나다 표집과 같은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 비교문화적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2개 문항이 제외된 것은 단순히 요인분석에 의한 경험적 결과가 표집의 성질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것(송인섭, 1987)으로는 볼 수 없겠다.

덧붙여 문항 16과 관련하여, 중국과 캐나다, 미국 표집간 소속요인의 차이는 검사도구의 문항내용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었다. 캐나다와 미국은 같은 서구문화권에 속하며, 유머(humor)가 풍부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므로, 16번 문항은 '사교적-리더십' 요인에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어의 유머는 영어단어에서 따온 말이지만 중국 아동들에게는 "타인을 놀리는 사람" 또는 "비꼬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문항이 '공격성-분열성' 요인에 부하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이해될 수 있었다(Chen et al., 1992). 본 연구에서 16번 문항이 요인 II와 요인 III에 낮지만 .34, .25수준으로 공통 부하를 보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행동 척도의 세 요인과 RCP의 세 요인은 관련 요인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평가자가 또래집단과 교사였다는 점에서 평가 보고간의 상관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음(Achenbach, McConaughy & Howell, 1987, 재인용)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수준 이상의 높은 상관이 나타난 것이었다. 따라서 RCP의 공인타당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결과로 간주될 수 있었다.

RCP의 28개 문항 모두는 집단 변별력이 유의하게 나타나 문항양호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비록 세 요인 각각의 총점간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크게 높지는 않지만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재검사 신뢰도의 수준은 Masten과 그의 동료들(1985)의 연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했을 때 나타난 .64 이상의 안정성 수준보다는 낮은 것이었다. 그리고 문항별 점수의 일치도가 유의하면서도 역상관을 보이는 일부 문항도 발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나라 아동에게 RCP를 실시했을 때 단순히 재검사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암시하기보다, 재검사의 시기 부적절성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1차 검사 후 재검사 실시 때까지 겨울방학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2월 초순동안 또래집단간 상호작용의 기회가 있었다할지라도 일치된 반응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추후 재검사 신뢰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상관계수의 유의성과 요인별 문항 내적합치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RCP는 신뢰로운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RCP의 심리측정적 적절성을 살펴본 바, RCP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도구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아울러 RCP의 예언타당도 연구(Morison & Masten, 1991)에서 밝혀졌듯이, RCP는 나중의 폭넓은 적용을 예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 특성을 평가차원으로 포함한다. 아동 중기에 공격성과 함께 또래수용 및 추후의 내재화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는 사회철회적 특성(Hymel et al, 1990, 1993) 또한 측정 가능함으로써 동료평가에서 유용한 중다차원적 접근의 도구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 비추어 RCP를 사회측정법의 대안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사회측정법과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사회측정법이 갖는 문제가 있고, 또래관계의 질을 또래에 의해 평가

하는 도구라는 측면에서 RCP를 대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측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도구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예로서, Hymel과 그의 동료들(1990)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또래관계 측정을 위해서는 사회측정법을, 또래 평판과 사회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CP를 함께 사용한 바 있다. 최근에 Rubin과 그의 동료들(1998)은 아동의 또래 적응 또는 또래성공에서의 개인차가 반영되는 분야를 사회적 상호작용, 우정관계의 발달과 유지, 또래집단에서의 수용성 등의 세 분야로 나누었다. 그리고 분야별 측정문제를 정리하면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정법에 RCP, PEI 등을 소개하였고 나머지 두 분야와 관련하여 사회측정법을 다룬 바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asten과 그의 동료들(1985)은 평가자의 성과 동성의 또래에 대한 평가가 관계 있는지를 알기 위해 평가자의 성별로 '교차-성 신뢰도'(cross-sex reliability)를 산출하고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측정적 평가 방법에서 아동들이 이성에 대해 편파적이라는 보고들(Rubin et al., 1989)에 근거한 분석으로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성의 아동 모두로부터의 지명횟수를 참고하되 그 같은 분석을 하

지 않았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들에게 동성의 또래만을 지명하도록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측정도구로서 RCP가 갖는 긍정적 성격에 불구하고 Rubin과 그의 동료들(1998)과 천희영(1997)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격성과 사회적 철회의 단일차원적 구조가 좀 더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해서 RCP 하위요인의 구조 또한 개념의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Hymel과 그의 동료들(1993)은 RCP의 점수가 또래지명도에만 의존하므로, 지명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그들은 비록 2개의 철회성 문항만을 다루었지만 문항 반응방법을 평정척도로 바꾸어 사용한 바 있다. 또래평정법은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집단적인 평가점수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심리측정적으로 바람직한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RCP를 우리 나라 아동의 사회적 발달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RCP를 적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도현심·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이선경·이재연(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모델과

정. *아동학회지*, 19(2), 49-64.
임연진(1998).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 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인섭(1987). 심리검사의 탐구논리: 성격검사의 문제와 방법론. 교육평가연구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 천희영(1997). 아동의 사회적 철회(Social Withdrawal)에 관한 기초 연구: 개념과 측정방법. *아동연구*, 6, 11-24.
- Achenbach, T. M., McConaughy, S. H., & Howell, C. T.(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 Acher, S. R., & Hymel, S.(1981).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 Sociometric and behavioral assessment. In J. D. Wine & M. D. Smye(Eds.), *Social competence*. NY: Guilford.
- Boivin, M., & Hymel, S.(1997). Peer experiences and social self-perceptions: A sequenti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135-145.
- Chen, X., Dong, Q., & Zhou, H.(1997). Authoritative and authoritarian parenting practices and social and school performance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1(4), 663-681.
- Chen, X., Rubin, K. H., & Li, B.(1997). Maternal acceptance and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3(3), 663-681.
- Chen, X., Rubin, K. H., & Li, Z.(1995). Social functioning and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1(4), 531-539.
- Chen, X., Rubin, K. H., & Sun, Y.(1992). Social repu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 A cross-cultural study. *Child Development*, 63, 1336-1343.
- Coie, J. D., Dodge, K. A., & Copottelli, H.(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 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Hartup, W. W.(1983). Peer relations. In P. H. Mussen (Series Ed.) &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pp. 103-196). NY: John Wiley & Sons.
- _____ (1992). Peer relations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In V. B. Van Hassett & M. Hersen (Eds.),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pp. 283-323). NY: Plenum Press.
- Hymel, S., & Rubin, K. H.(1985). Children with peer relationship and social skills problems: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In G. J. Whitehurst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2, pp. 254-297). Greenwich, CT: JAI Press.
- Hymel, S., & Rubin, K. H., Rowden, L., & LeMare, L.(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2004-2021.
- Hymel, S., Woody, E., & Bowker, A.(1993).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Considering the child's perspective. In K.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N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sten, A. S., Morison, P., & Pellegrini, D. S.(1985). A Revised Class Play method of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523-533.
- Morison, P., & Masten, A. S.(1991). Peer reputation in middle childhood as a predictor of adaptation in adolescence: A seven-year follow-up. *Child Development*, 62, 991-1007.
- Rolf, J. E.(1976). Peer status and the directionality of symptomatic behavior:

- Prime social competence predictors of outcome for vulnerable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6, 74-88.
-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G.(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 and groups.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pp. 619-700). NY: John Wiley & Sons.
- Rubin, K. H., Hymel, S., & Mills, R. S. L.(1989). Sociability and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Stability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57(2), 237-255.
- Rubin, K. H., Rose-Krasnor, L.(1992).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In V. B. Van Hassett & M. Herson (Eds.),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pp. 283-323). NY: Plenum Press.
- Younger, A., & Daniels, T. M.(1992). Children's reasons for nominating their peers as withdrawal: Passive withdrawal versus active iso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55-960.
- Younger, A., & Gentile, C., & Burgess, K.(1993). Children's perceptions of social withdrawal: Changes across age. In K.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NY: Lawrence Erlbaum Associates.